

##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의 신학과 성경해석\*

안명준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조직신학)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혁신학자 박형용 박사(1942- )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핀 후에 성산의 신학적 특징과 그의 성경해석 원리와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 그의 작품을 역사적 전통적인 개혁신학적 해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의 신학은 개혁신학으로 기초되었으며 그의 성경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성경해석은 개혁신학적 원리와 구속사적 해석을 전제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그의 특징적인 성경해석 방법으로는 문법적-역사적-정경적 해석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박형용의 신학과 해석 방법은 개혁신학의 원리를 통하여 구속사적이며 성경신학적 방법이 그의 성경해석에서 분명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박형용, 박윤선, 개혁신학, 성경해석, 성경신학, 구속사적 해석원리, 문법적-역사적-정경적 해석

\* 논문 접수일: 2019. 01. 30.    수정 접수일: 2019. 04. 10.    게재 확정일: 2019. 04. 13.

## I. 서론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가 자란 환경은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힘든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기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신약신학 분야에서 논문과 저서와 강의를 통하여 영향력있는 신학자로 사역하고 있다.<sup>1</sup> 그는 언제나 가난한 학생들을 배려하고, 선교와 봉사, 그리고 신학 교육과 행정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개혁신학자요, 신약신학자이며, 한국에서 3개의 신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는 말씀에 바로선 신학자요, 진실된 목회자이며, 유머가 풍부하며 인간미가 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는 국민일보와 세계복음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자랑스런 신학자상’을 수상했으며, ‘오픈 성경’과 ‘표준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번역에도 참여했다.<sup>3</sup> 그는 학자로서 대외 활동도 왕성하게 하였는데,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그리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성경신학회 회장을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개

<sup>1</sup> 그의 주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박형용, 『사도행전 주해』 (서울: 성광문화사, 1981/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3/2007/2012);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3); 『복음 비평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신약개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7/2002/2005/2009);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엠마오, 1991); 『사복음서 주해(Ⅰ)』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1994); 『사복음서 주해(Ⅱ)』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1994); 『사복음서 주해』 (합본)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2009/2015); 『신약 30주제』 (서울: 하나, 1996); 『교회와 성령』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1997/2012); 『빌립보서 주해』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1997/2011); 『에베소서 주해』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1998/2006); 『믿음의 삶』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2001); *Redemption and Newness of Life* (Suwon: Hapshin Press, 2001); 『신약 정경론』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2002); 『히브리서』 (한국성경 주석총서, 서울: 도서출판 햇볕, 2003); 『바울신학』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2005/2008/2013); 『신약성경신학』 (수원: 합동신대학원출판부, 2005);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해』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정압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Suwon: Hapshin Press, 2011); *From Incarnation to Exaltation* (Seoul: SBGST, 2011).

<sup>2</sup> 성산 박형용 박사는 2001. 3 - 2005. 2 합동신대학원대학교 총장, 2008. 2. 25 -2012. 2. 28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2012. 7. 19-2013. 3. 9 AGST-Pacific 총장, 2013. 2. 19-2015. 2. 18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sup>3</sup> 국민일보, “박형용 박사, 신학은 균형잡혀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1406942&code=23111111>, 2009-11-08.

혁주의연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활동은 그의 삶과 신학의 실천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성산(聖山)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핀 후에 성산의 신학적 특징과 그의 성경해석 원리와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 II.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의 생애

개혁신학자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는 1942년 1월 20일에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울포리 (장목동)에서 아버지 박지선과 어머니 오옥금 사이에 6녀 2남중 6번째요,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유교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박형용 박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울포교회(회천중앙교회)는<sup>4</sup> 그 당시 서울의 총회신학교 학생이셨던 이순배 목사,<sup>5</sup> 이기재 목사, 유춘식 목사 등이 섬겼던 교회였다. 성산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 남 장로교회(PCUS)가 순천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sup>6</sup> 그들이 파송

<sup>4</sup> 울포교회는 1965년 회천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꾼다. 울포교회는 황성수 박사의 부친이신 보성 읍교회 황보의 목사와 인휴(Hugh Linton) 선교사의 부친이신 인톤(William Linton) 선교사, 그리고 보이얼(Boyle)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 당시 윤천수 집사(후에 장로로 장립 받음)가 그의 발을 기증하여 1927년 4월 1일 설립 되었다.

<sup>5</sup> “고 이순배 목사는 1923년 1월 출생, 1955년 순천 고등성경학교에서 전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1961년 장로회 신학대를 졸업했다. . . 고 이순배 목사는 그동안 통합교단에 속하여 사역하던 중 박윤선 목사의 사상과 말씀운동에 영향을 받아 합동신학교에 아들과 사위를 입학시키면서 합동교단에 들어오게 되었고 1986년 대방동에 대봉교회를 설립, 16년 동안 사역하다 지난 2002년 은퇴했다. 이 목사는 그 동안 남서울노회 노회장을 역임하고 15년간 개혁주의 신행협회 이사장(1995년-2010년)으로 문서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목사는 18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그리스도인 의사로부터 “자네! 예수 믿지 않으면 폐인이 되니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후로부터 평생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했다.” 기독교개혁신보, “대봉교회 이순배 은퇴목사 소천”, <http://rpress.or.kr/xe/18398>, 2010-09-29.

<sup>6</sup> 순천에서는 1906년 오웬(Clement Carrington Owen) 선교사가 자신의 조사와 함께 보성지방을 중심으로 순회전도에서 조상학을 만나 전도하였다. 회심 후에 1909년 벨(Eugene Bell)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조상학의 전도 열심은 더욱 그 열기를 더해 이번에는 보성지방의 최초의 교회인 무만동교회도 정태인과 김일현이 그에게 전도 받아 세운 교회였다. 이 중에 정태인은 목사가 되어 순천 삼미교회를 설립하고 1917년 평양장로교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전

한 목회자들을 통해 복음을 접했다고 한다.<sup>7</sup> 성산은 1956년 1월 14일 세례를 받는다. 그 당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어려서부터 그는 총명하였지만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여건은 좋지 못했다.<sup>8</sup>

그는 회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중학교를 1957년 2월 졸업한 후 서울로 유학을 떠난다. 당시에 총신대학원에서 교무과장으로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형인 박형만 장로(당시 집사)는 1956년 8월에 서울에 올라와 있었다. 박형용 박사는 아는 어떤 전도사도 서울에 있었고 형님도 이미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1956년 말 서울로 유학을 온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감히 서울로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힘든 여정이었다. 서울에서도 경제적인 사정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박형용 박사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고등학교를 찾았다고 한다. 마침 서울 원효로 3가 소재 국립체신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국비로 학생을 공부시켜 체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고등학교였다. 그는 1956년 말 다음해 입학を 위해 특차로 시행되는 국립 체신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시험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도에 실패하고 만다. 그 후 밤으로 야간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때로는 아이스크레이크, 빵 등을 팔고, 때로는 신문을 팔면서 일 년을 보낸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판잣집에서 주로 수제비를 먹으면서 살았다. 한 동안은 다다미 1조와 반조를 합친 정도의 공간에서 5, 6명의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과 그의 형님과 함께 잠을 잘 때도 자주 있었다. 그는 일년 후 1957

---

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아 보성군 별교지방 목사로 무만교회를 비롯 낙안 평촌교회, 고흥읍교회 등을 순회 인도하다가 순천읍교회, 무만교회를 두루 시무하면서 제주노회로 옮겨 모슬포교회, 삼양교회, 월막교회, 고산교회를 시무하면서 목회에 큰 공을 세운바 있는 분이였다.” 인용 KCM, “조상학”

[http://kcm.co.kr/person/person\\_k013.html](http://kcm.co.kr/person/person_k013.html), 2015-8-12.

<sup>7</sup> “박형용 총장”, 크리스찬 타임즈, <http://www.kctusa.com>, 2013-01-28.

<sup>8</sup> 참고로 그의 교육 경력을 소개한다. 1961. 3~1965. 2 서경대학교 졸(문학사, *Summa Cum Laude*). 1967. 3~1969.1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목회학석사, *Summa Cum Laude*). 1970.10~1972. 5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신학석사). 1972. 9~1975. 6 미국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신학박사, *Magna Cum Laude*).

년 말에 다시 국립제신고등학교의 문을 두드린다. 첫해의 시험과는 달리 두 번째의 시험은 영 자신이 없어서 불합격되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얻은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 후 합격하도록 섭리하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국립제신고등학교에서 한국의 두뇌집단과 함께 3년을 등록금 전액 면제받고 잡비를 조금씩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중요한 것은 박형용 박사가 제신고등학교 3학년 때에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 국립제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박형용 박사는 1961년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 대학으로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여 최우등생으로 졸업(문학사)을 하였다. 이 대학에서 그가 영문학을 전공했기에 일찍이 영어에 능숙하였다. 후에 그가 미국에서 학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선교사로서 활동하는데도 유익하였다. 그 3때 소명을 받았기에 신학의 꿈을 갖고 1967년 총회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하여 동산교회 교육담당 전도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키며 따뜻한 지도자로서 학문과 목회의 조화에 배움을 얻었다고 한다. 그가 1969년 63회로 졸업할 때까지 당시 총신의 교수로 봉직한 스승들은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최의원 박사, 간하배 박사, 이상근 박사, 박아론 박사, 김의환 박사, 명신흥 박사, 차남진 박사, 김득룡 박사, 그리고 김희보 박사등이 있었다.<sup>9</sup> 그는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을 큰 복이라고 하며 자신의 삶과 목회사역에 큰 영향을 미친 분들로 존경하였다.

박형용 박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되어 1970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개핀 박사(Richard B. Gaffin Jr.)를 지도교수로 하고 신학석사(Th.M.) 과정을 시작하여 1972년 5월 로마서 8장에 있는 살리는 영에 대한 연구로 신학석사 논문을 완성했다. 1972년 9월 미국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1975년 신약교회의 디아코니아 개념연구로 신학박사를 받게된다. 1973년 9월 29일 미국장로교회 (P.C.A.)창립을 주도한 북 조지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바른 신학사상에 입각

<sup>9</sup> 박아론, 『나의 아버지 박형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443.

한 바른 교단을 꿈꾸던 박형용 박사는 1973년 12월 4일에 창립된 미국의 건전한 교단인 P.C.A. 교단의 창립총회 총대로 참석하여 P.C.A. 교단의 한 멤버가 된다.<sup>10</sup> 박형용 박사는 1973년 9월 29일 목사안수를 받고 즉시 1975년 3월까지 미국 그레이스(Grace) 장로교회의 목사로 봉직했으며 또한 1973년~1976까지 미국 애틀란타 성서신학대학(ASBS) 신약학 교수를 하였고, 미국장로교회 (P.C.A.) 선교사가 되어 1977년 귀국하였다.

1977년 3월부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로 강의를 시작하였고 1979년 3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도서관장을 하였다. 1980년 합동 신학대학원 교수가 되었고 후에 2001년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2008년에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2013년에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2019년 3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 Ⅲ.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의 신학 형성

성산은 자신의 신학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총신의 훌륭한 스승님으로부터 많은 배움에 감사하며 그들 모두를 존경하였다. 특별히 그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준 두 분은 그 당시 총장이신 조직신학자 박형룡 박사였고, 신약을 가르치신 박윤선 박사였다.<sup>11</sup> 해외 석학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인 간하배 박사와 개핀 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sup>10</sup> 미국장로교회는 창립총회 때에 교단 이름을 National Presbyterian Church(NPC)로 정하고 시작을 하였다. 그런데 Washington D.C. 에 위치한 당시 북장로교(PCUSA) 교단에 소속된 한 개 교회의 이름이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였는데 그 교회가 자신들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여 조지아 주 메이콘(Macon)에서 모인 제 2회 총회에서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로 바꾸기로 결의하였다.

<sup>11</sup> 박형용,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수원: 영음사, 2013), 26. 당시 성산의 스승 교수로서는 두분 외에 박아론, 간하배, 차남진, 김희보, 명신흥 등이 있었다.

## 1. 박형룡 박사의 영향

당시 한국 신학계의 거목이시며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이신 박형룡 박사로부터 정통 조직신학을 배우게 된 것을 복되며 특권으로 말한다. 먼저 박 박사는 그의 스승 박형룡 박사가 겸양의 덕을 보이는 신학자라고 한다. 스승이 자신의 조직신학을 “다른 사람들의 화원에서 꺾어 모은 꽃다발”이라고 겸손하게 학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서는 신학 교재가 거의 없는 시기에 박형룡 박사는 루이스 벨코프의 조직신학을 기초로 다른 개혁신학자들의 글을 사용하여 자신의 책을 만들었다.<sup>12</sup> 그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읽으시고 약간의 논평을 하신 후에 “넘어갑네다”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셨다고 한다. 시험일 바로 전 예제는 학생들의 예상을 깨고 교재 전체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주었다고 한다.<sup>13</sup> 박형용 박사는 자신의 이름이 박형룡 박사와 발음이 너무 비슷하여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하여 훌륭한 스승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의 스승은 참으로 큰 인물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격랑기를 살아 온 한국 교회를 위해 박형룡 박사를 크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보수주의 신학, 화란 개혁주의 신학,<sup>14</sup> 그리고 성경 무오 사상을 가르친 박형룡 박사가 자신의 좋은 멘토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sup>15</sup>

## 2. 박윤선 박사의 영향

신약학자로 박형용 박사는 “성경과 개혁파적 이해를 존중하는”<sup>16</sup> 주경신 학자인 박윤선 박사의 영향이 매우 크다. 박형용 박사는 박형룡 박사가

<sup>12</sup> 박형용, “박형룡 박사와 박형용, 그리고 혈떡고개 3년의 신학수업”, 『나의 아버지 박형룡』, 박아론, 443-444. 참고 박형용, “‘신학정론’과 죽산(竹山) 박형룡”, 『신학정론』 30/1 (2012): 273-298.

<sup>13</sup> 박형용, “박형룡 박사와 박형용, 그리고 혈떡고개 3년의 신학수업”, 444.

<sup>14</sup> 이상웅, 『박형룡 박사와 개혁신학』 (용인: 목양, 2013): 64-180.

<sup>15</sup> 박형용, “박형룡 박사와 박형용, 그리고 혈떡고개 3년의 신학수업”, 444-449.

<sup>16</sup> 이승구, “정암의 개혁파적 교회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개혁신학』 25 (2009): 118-151.

한국 보수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면 박윤선 박사는 주경신학 분야에서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한다.<sup>17</sup> 박형용 박사는 박윤선 박사가 가르쳐 주신 영향으로 그의 신학 체계를 개혁주의 신학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sup>18</sup> 박형용 박사는 먼저 자신의 삶 속에 신학적인 체계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정암을 통하여 형성되었다.<sup>19</sup> 그가 박윤선 박사로부터 영향 받은 것은 성경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박형용 박사는 정확무오한 성경에 근거한 주석과 성경신학 그리고 특별히 바울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다.

박형용 박사는 정암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데 정암 박윤선 박사는 순수하시며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sup>20</sup> 박형용은 정암의 교훈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암이 1988년 6월 30일에 소천하기 4년 전쯤부터 정암이 “특별히 의미가 있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sup>21</sup> 기록하기로 마음먹고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였는데 바로 이런 결과물이 “박윤선 박사의 잠언적 교훈”이다.<sup>22</sup> 박형용 박사는 정암의 학문과 인생경험과 헌신이 들어있는 잠언적 교훈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sup>23</sup> 이렇게 박형용 박사는 성경관, 개혁신학, 지혜로운 삶 그리고 기도에서 많은 교훈을 박윤선 박사로부터 받았다.

17 박형용, “박형용 박사와 박형용, 그리고 혈떡고개 3년의 신학수업”, 443.

18 박형용,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34.

19 박형용,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26.

20 박형용,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34.

21 박형용,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33.

22 박형용, “박윤선 박사의 잠언적 교훈”, 『신학정론』, 12 (1989): 296-319.

23 박형용, “박윤선 박사의 잠언적 교훈”, 319.



### 3. 웨스트민스터학파의 영향

박형용 박사는 당시 총회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한국교회를 대표할만한 훌륭한 신학자이신 간하배(Harvie Conn) 박사에게 신학을 배운 것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sup>24</sup> 당시 하비 칸 교수는 1960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1965년에 정식 교수로 임명되어 신약학, 교회사 그리고 변증학을 1972년도까지 강의했다. 또 도서관장까지 역임하면서 학교를 돕고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sup>25</sup> 박 박사는 간하배 박사의 제자로서 간하배 박사가 세계석학에 걸 맞는 신학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스승인 간하배 박사가 신학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특별히 구속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었으며 현대신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 한분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유학했을 때 지도교수인 개핀(Gaffin Jr.) 교수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한다.<sup>26</sup>

그리고 미국 유학에서 만난 밴틸(Cornelius Van Til) 박사 그의 스킬톤(John H. Skilton) 박사, 휴즈(R. Kent Hughes) 박사, 노만 셰퍼드(Norman Shepherd) 박사, 그리고 슬로트(L.W. Sloat)교수로부터 수업을 들었다. 특별히 신약전공의 필수 과목은 아니었지만 그 유명한 반틸의 변증학 강의를 청강하게 되었고 그의 저서를 선물로 받을 정도로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와 같은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밑에서 신학수업을 받고 큰 영향을 받았다.

## IV. 성산 박형용 박사의 신학적 특징

박형용 박사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성경과 성경해석에서 개혁 신학의 방식을 따랐다. 역사적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을 이어 받고 성경을

<sup>24</sup> 간하배 박사의 신학과 사상을 존경하고 그 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는 평택대학교 이광희 박사가 있다.

<sup>25</sup> 박성일, “하비 칸의 신학과 사역”,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신학』, 이종윤의 (서울: 필그림출판사, 2010), 401-402.

<sup>26</sup> 2015년 8월 10일 박형용 박사와 전화 인터뷰.

하나님의 무오한 영감된 말씀으로 존중하며 신학과 해석에서 자신의 체계를 세웠다.

## 1. 개혁신학

성산 박형용 박사는 철저한 개혁신학자이다. 그가 이런 개혁신학을 알게 된 배경에는 총신에서 스승들로부터 배운 영향이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교에서 개혁신학을 정립한 영향이라고 한다. 성산은 신약학자로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따르는데 이들의 신학의 뿌리가 바로 바울에게 있으며 바울은 신학자의 모델이라고 한다.<sup>27</sup>

박형용 박사는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은 개혁주의적 입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개혁주의는 예수를 믿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sup>28</sup> 이런 그의 견해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것이다. 1990년 「신학정론」에 기고한 “바울과 개혁주의”라는 권두언에서 그는 개혁신학이란 바른 신학이며 종교개혁신학이며 바로 바울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산은 개혁신학의 뿌리를 바울에서 찾는다.<sup>29</sup> 성산은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의 사상을 재 발견한 운동이요, 바울을 재 발견한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뿌리가 바로 바울신학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개혁주의는 깊은 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개혁신학을 정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때 가능해 진다고 한다.<sup>30</sup> 개혁신학과 같은 의미의 칼빈주의란 성도들의 생활과 교회 활동에서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만으로도 교훈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sup>31</sup>

27 박형용, “신학자의 모델 바울”, 「성경과 신학」 5 (1985): 53-63.

28 “박형용 총장”, 크리스찬타임스, <http://www.kctusa.com>, 2013-01-28

29 박형용, “바울과 개혁주의”, 「신학정론」 8/2 12 (1990): 240-242.

30 박형용, “바울과 개혁주의”, 240-242.

31 박형용, “칼빈주의는 아직도 생동력이 있는가?”, 신학정론 15/2 (1997): 295-298. 안명

## 2, 성경관

박형용 박사는 성경관에 대한 접근을 조직신학적인 면보다는 성경 본문 자체가 증거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을 다룬다.<sup>32</sup> 박형용 박사에게 있어서 성경관은 성경해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무오한 기록을 주셨기에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를 따라서<sup>33</sup>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동시에 인간의 작품인 특수한 책이라고 한다.<sup>34</sup>

### 1) 성경의 신적기원

박형용 박사는 기록된 성경 전체 66권을 영감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sup>35</sup> 성경해석학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성경은 인간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인간의 활동이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작용하시는 능력에 의해 조정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참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sup>36</sup> 따라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지기에 성경은 무오하다고 한다.<sup>37</sup>

준, “칼빈 신학방법론의 길잡이: 기독교 강요의 이해를 위한 칼빈의 신학적 전제 요소들”, 『조직신학연구』 10 (2009): 7-31.

<sup>32</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81-118.

<sup>33</sup> 박형용, 『말씀산책』 (수원:합신대학원출판부, 2018), 15. 그의 인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Cf.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56), 102.

<sup>34</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81; Hyung Yong Park,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144.

<sup>35</sup>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신학정론』 21/1 (2003): 5-7; 참고.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3.

<sup>36</sup> 박형용,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본문의 중요성”, 『신학정론』 3/1 (1985): 62-80.

<sup>37</sup>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3.

## 2) 영감론

그는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요 무오한 말씀으로 받아 들인다.<sup>38</sup> 이런 그의 성경관은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의 영향이 컸다. 성경무오 사상은 조직신학자 박형룡 박사를 따른다.<sup>39</sup> 또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박윤선 박사를 따랐다. 박형룡 박사에게 의하면 정암은 성경을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일점일획이라도 잘못이 없으며, 생명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책이며,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화와 광명을 주는 책이었다.<sup>40</sup> 생명력 있는 말씀과 관련하여 박형룡 박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뿐만 아니라 성경 주석에 혼신의 힘과 큰 관심을 쏟았던 것은 성경이 추상적인 책이 아니라 직접 성도들의 생활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교훈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1</sup>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뿜는 호흡에 의해 생성된 산물이라고 한다.<sup>42</sup>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인하여 성경 분문의 제 1차적인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한다.<sup>43</sup> 성령이 인간 저자들을 조종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한다.<sup>44</sup>

## 3) 언어의 신적 기원

박형룡 박사는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이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언어의 한계를 설정하여 초월적인 진리가 언어화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38 박형룡, “신약의 영감과 난제들”, 「성경과 신학」 9 (1990): 92-126.

39 박형룡, “박형룡 박사와 박형룡, 그리고 혈떡고개 3년의 신학 수업”, 449.

40 박형룡, “박윤선 박사의 잠언적 교훈”, 297.

41 박형룡, “칼빈주의는 아직도 생동력이 있는가?”, 297.

42 박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91.

43 박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98.

44 박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98.

에 대하여 박형용 박사는 비판을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은 언어가 그 성격상 신적인 것임을 증거 하는데,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속한 것이며, 인간이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시 94: 9, 시 116: 1,2).<sup>45</sup>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언어적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부터 왔다고 보아야 한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해석이란 우리의 삶에 스며있어서 피할 수 없고 해석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sup>46</sup> 그러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적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형용 박사의 언어의 신적 기원에 대한 주장은 성경적 증거와 일치한다.<sup>47</sup>

#### 4) 성경의 통일성

박형용 박사는 성경의 통일성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저자라는 것이다. 그는 베드로후서 1:21, 이사야 34:16에 근거하여 성경은 단일한 저자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고 성경의 한 부분은 신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성경 저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와 조정을 받아 기록했다고 한다.<sup>48</sup> 성경 66권이 의미상 상충되지 않으며, 교훈의 일관성을 가지며, 다양성(diversity)에서 통일성(unity)을 가진다고 한다.<sup>49</sup>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의 통일성을 인정한 것인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

<sup>45</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1.

<sup>46</sup> Nicholas Wolterstorff, “The Importance of Hermeneutics for a Christian Worldview,” in *Disciplining Hermeneutics: Interpretation in Christian Perspective*, ed. Roger Lundin (Grand Rapids: Eerdmans, 1997), 27.

<sup>47</sup> 박형용 박사는 성경 자체가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언어의 해석적인 성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번역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7.

<sup>48</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11.

<sup>49</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11-113.

자체가 성경 해석학적인 명제로서 성경의 통일성을 인정하며,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이다(*scriptura sui ipsius interpret*)라는 주장에서 나타난다고 한다.<sup>50</sup>

마지막으로 성경의 통일성은 그 특징이 구속적-역사적(*redemptive-historical*)이라고 한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신학적 논문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sup>51</sup>

## V. 성산(聖山) 박형용 박사의 성경해석

### 1. 두가지 해석

박형용 박사는 성경해석학의 중요한 요소가 성경 본문, 해석자, 그리고 해석원리라고 한다.<sup>52</sup> 그런데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성경 자체가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눅 24:27, 행 8:26, 벡후 3:16, 딤후 2:15). 따라서 개인이나 교회가 성경해석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sup>53</sup>

#### 1) 잘못된 해석

먼저 그는 오늘날의 유행하는 해석자들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성경 본문을 신학적인 방법론의 한 표본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한다. 이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객관적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자신의 신학 작업을 위한 하나의 보조물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한다.<sup>54</sup>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sup>50</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16-117.

<sup>51</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17.

<sup>52</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3.

<sup>53</sup> 박형용, “칼빈주의는 아직도 생동력이 있는가?”, 296.

객관적인 성경 본문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주관적이 되어 주관적인 견해를 근거로 해석한다고 한다.<sup>55</sup> 특히 신 해석학과(New Hermeneutic)가 객관적인 본문의 의미를 찾지 않고 해석자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sup>56</sup>

그는 성경의 우월권을 부여하지 않고 성경이 과학적 발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사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나 과학적 이론이 담겨있는 책이 아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이성적인 한계에서만 해석하는 부류들을 비판한다. 특별히 언어의 한계를 설정하여 초월적 진리가 언어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트겐슈타인과 자유주의 학자들은<sup>57</sup> 인간 이성으로 체험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경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관점에 대하여 박형용은 잘못된 해석이란 오직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성경기록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sup>58</sup>

마지막으로 잘못된 해석은 해석자가 성경을 임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다.<sup>59</sup> 이런 왜곡현상은 해석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떠나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60</sup>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sup>61</sup> 칼빈도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sup>62</sup>

<sup>54</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3.

<sup>55</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4.

<sup>56</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39.

<sup>57</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1.

<sup>58</sup>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6.

<sup>59</sup>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7.

<sup>60</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45.

<sup>61</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85; 참고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7.

<sup>62</sup> Myung Jun Ahn, “The Ideal of Brevitas et Facilitas: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retoria, 1998), 111-112. 성경왜곡에 대한 로마 카

성산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의 주도권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음을 강조한다. 성경은 허공에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교회의 책이요 기독교공동체에서 읽혀지는 책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경해석과 교회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해석의 방향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성경이 교회의 진로를 정하는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이라고 한다. 그들은 성경해석이 교회에 있으며 해석의 최종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성산은 이처럼 해석의 권한을 성경에 두지 아니하는 방식을 잘못된 해석으로 보았다.<sup>63</sup>

## 2) 바른 성경해석

박형용 박사는 성경의 신적 기원을 믿고 성경의 무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성경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sup>64</sup> 성경의 무오성은 바른 성경 해석 원리를 산출하며 그런 원리는 해석자에게 확신을 주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 준다고 한다.<sup>65</sup>

성경이 언어적 특성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터득할 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적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sup>66</sup> 또한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특성을 이해할 때에 가능하다고 한다.<sup>67</sup>

또한 해석자가 주관성을 벗어나 객관적인 성경본문에 의존해야한다고 하며 겸손한 태도로 중용의 미덕을 살려야 하며, 또한 성령의 영감된 기록이기에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

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에서 약 160번 정도 언급한다.

<sup>63</sup>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 2 (1984): 28-42.

<sup>64</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85.

<sup>65</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85-86.

<sup>66</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4.

<sup>67</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41.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sup>68</sup>

바른 해석을 정립하기 위하여 박형용 박사는 바울을 해석학자의 모델로 설명한다.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료들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sup>69</sup>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진술하기보다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다.<sup>70</sup> 이런 사실은 바울이 자기의 깊은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사용한 신학적 사고를 통해 서신을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연구하고 생각하는 신학자였다고 한다. 즉 바울은 심오한 해석학적 신학적 활동을 서신서에 보여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 성산(聖山) 박형용의 성경해석원리

박형용 박사는 성경 해석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본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하고 쓴 책이 바로 그의 명저 『성경해석의 원리』이다.<sup>71</sup>

박형용 박사에 따르면 해석원리는 일반원리와 특수원리가 있는데, 이미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 속에 내재 되었다고 한다. 일반원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의 언어를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특수원리는 언어의 구체적인 표현방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매우 중요한 주장을 단언하는데 성경 해석학이란 이미 성경 해석원리가 성경 속에 내포되었는데 이런 원리를 찾아서 종합 제시함으로써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게하는 분야라는 것이다.<sup>72</sup> 이렇게 성경 내에서 찾아진 해석원리는 해석자의 마음 속에 내재함

<sup>68</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4.

<sup>69</sup> 박형용, 권두언, “바울과 개혁주의”, 240.

<sup>70</sup> 박형용, 권두언, “바울과 개혁주의”, 240.

<sup>71</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3.

<sup>72</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4.

으로 실제적인 해석을 할 때 해석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해석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할수 있다고 한다.<sup>73</sup>

이런 내포원리 방식은 반텔이 주장한 전제주의 변증법에 영향 받았던 박윤선 박사가 주장하는 계시의존사색 방법이다. 그런데 박형용 박사는 계시의존사색이라는 방법이 공허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4</sup>

박형용 박사는 성경은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은 언어가 그 성격상 신적인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속한 것이다. 인간이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sup>75</sup>

### 1) 개혁신학적 원리

박형용 박사는 성경이 교회로부터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을 반대하고 오히려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서 있다고 한다. 즉 교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며, 교회는 본문을 지배할 수 없고 오히려 본문에 근거해서 존재한다. 교회의 본문 해석, 즉 성경 해석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다고 한다. 이런 그의 주장은 제도적 교회와 사제들에 의해 독점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개혁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성경해석을 보여준다. 그는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sup>76</sup>라고 주장한다.

박형용의 해석의 뿌리들은 박형용 박사와 박윤선 박사 그리고 간하배 박사와 개빈 박사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의 영향 속에서 종교개

<sup>73</sup>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32.

<sup>74</sup> 박형용,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34.

<sup>75</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5.

<sup>76</sup>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7.

혁자들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방법이 성경에 나온 해석 원리이며 바울의 해석에서 나왔다고 한다.

박형용 박사는 본인은 개혁주의적인 성경해석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고 한다. 해석의 역사를 말할 때 그는 루터가 주장한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해석원리,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그리고 칼빈에 의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가 바른 원리라고 말한다.<sup>77</sup>

그는 성경해석원리를 요약하여 몇 가지로 보여 준다. 바로 개혁신학적 원리로 볼수 있다. 먼저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성경 원어의 어휘와 문법을 익혀야 하며, 성경 원저자의 뜻을 찾아야 하며,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성경 해석에 참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한다고 주장한다.<sup>78</sup>

## 2) 구속사적 해석원리

박형용 박사의 성경 해석 이론 중 구속사적 해석 원리는 독특하다. 이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항상 그 배면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sup>79</sup>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원과 부활 생명을 다루는 구속사라는 것을 부각한다.<sup>80</sup>

성경은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속의 역사를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sup>81</sup> 그의 책 『성경해석의 원리』에서 구속사적 해석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해석이며, 해석자의 궁극적 관심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일, 현재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

<sup>77</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68.

<sup>78</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56-160.

<sup>79</sup> 박형용, 『말씀산책』, 15

<sup>80</sup> 크리스찬타임스, “박형용 총장”, <http://www.kctusa.com>, 2013-01-28 03:21.

<sup>81</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5.

려 준다고 한다.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과 그의 백성의 죄에서부터 구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를 연구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임을 알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해석자의 궁극적 관심은 역사가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 그 역사의 구속적 성격을 이해하고 구속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속 역사의 해석을 생각할 때 성경 해석자의 활동은 성경에 내재한 해석적 관심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 해석은 구속 역사를 해석해 놓은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활동이 된다고 한다.<sup>82</sup>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우리들의 해석 활동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경이 해석해 놓았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들의 해석 활동도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과 우리들이 해석 활동에서 서로 밀접성을 증명한다고 한다.

“성경이 구속 역사를 해석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확무오하지만, 우리들의 해석 활동에는 오류가 내포되어”<sup>83</sup> 있다고 한다. 즉 성경과 우리의 해석 활동에는 공통적으로 연속성이 있고 차이점으로 불연속성이 있다고 한다. 성경도 구속 역사를 해석한 것이며 우리들의 해석 활동 역시 성경 해석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며, 차이점은 성경의 경우 정확무오하지만 우리의 해석 활동은 오류가 있다고 한다.<sup>84</sup>

그래서 성경 해석시 성경에 우월권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특별계시로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함인데 세상의 목적과 역사적 발전을 이해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

<sup>82</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6.

<sup>83</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6.

<sup>84</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6-107.

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sup>85</sup> 여기서 박형용 박사는 죄로 인한 일반계시의 부족을 인정하고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사적 관점을 강조하는 그는 성경관 가운데 통일성의 특징은 구속적-역사적 (redemptive-historical)이라 한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것이라 한다. 특히 성경 계시는 그의 백성의 구속과 창조의 회복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과정을 증명하거나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성경이 구속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위해 성경 밖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연구와 도움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내의 자료가 성경 밖의 자료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86</sup>

### 3. 성산(聖山) 박형용의 문법적-역사적-정경적 해석방법

성산은 성경해석의 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원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성경 자체가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원리를 근거로 그는 매우 중요한 삼위일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과 정경적 해석 방법은 분리되어 사용하지만 박형용 박사의 성경해석 방법은 3개의 조합으로 문법적-역사적-정경적 해석방법이라는 독특성을 가진 면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성경 본문의 언어의 분석을 시도하는 문법적 방법과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시도하는 역사적 방법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위의 두 방법을 돕기 위해 정경적 방법을 주장한다.

<sup>85</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07.

<sup>86</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17.

### 1) 문법적 해석법

문법적이라는 말은 성경안에 나타난 문법을 자신의 문법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성경의 문법이 비록 세련된 문법이 아닐지라도 그 문법 자체를 이해하고, 문법적 오류를 성급하게 지적하기 보다는 원저자의 뜻이 전달되도록 해석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sup>87</sup> 문법적 연구는 항상 그 언어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문법적 연구는 그 원어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단어의 뜻, 단어와 단어의 관계성, 격, 법, 시상, 사상의 발전 등을 연구하여 그 단어가 성경기록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sup>88</sup>

### 2) 역사적 해석법

문법적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적 해석법은 몇 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방식으로 주어졌기에, 저자와 저자의 글을 바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리고 장소, 시대, 환경 등은 기록된 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저자가 그 말을 쓸 때에 붙여넣은 정신을 포착하여야 한다고 한다.<sup>89</sup> 이점에 있어서는 박형용 박사는 버클리(A. Berkeley)가 주장한 성경기록 당시의 원 문화(the original culture)를 이해해야 우리의 문화(our culture)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응용하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sup>90</sup>

역사적 해석방법은 성경의 각 책을 연구하는 데 그 책이 쓰여진 역사적 형편에 비추어 연구함으로써 본문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로서 출발하게 된다.

<sup>87</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46-147.

<sup>88</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48.

<sup>89</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50.

<sup>90</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50.

### 3) 정경적 해석법

박형용 박사의 이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의 유산과 보스(G. Vos)가 계시의 점진성을 강조하는 성경신학을 접목하고 있다. 이는 개혁신학의 해석학적 발전을 독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종합이 성경적인 근거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해석법이다.

정경적 해석법은 먼저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인정하며 성경의 통일성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방법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해석자가 된다는데 있다. 해석자는 성경의 각 책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추어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sup>91</sup>

정경적 해석법은 정경 66권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정경 66권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 이 방식은 신약의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 어떤 중간기의 문헌이나 다른 역사적 문헌의 권위보다는 구약 자체에서 그 개념을 찾아내는 시도이다. 또한 이 방법은 계시의 점진성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벌코프(L. Berkhof)의 신학적 해석법과 그 강조에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한 뭉치에 주신 것이 아니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주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말씀 계시가 구속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주어졌기에 계시의 점진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성산은 게할더스 보스(Vos)의 성경신학에 근거하여 정경적 해석법을 강조한다. 보스는 계시는 구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에 구속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시는 공중에 매달리는 것처럼 된다고 말하는 것에 성산은 동의하고 있다.

정경적 해석법은 성경 66권이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로 기록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문법적 역사적 해석방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방법으로 해석하면 도움을 준다고 한다. 성경에는 문자적 이상의 뜻을 내포한 구절이 많은데 신비적이거나 상징적인 뜻을 가진

구절이나 표상적인 뜻을 가진 구절들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만으로는 깊은 뜻을 찾아내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예언이나 시도 문법적

<sup>91</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55.

역사적 해석 방법만으로는 충분히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난관에서 정경적 해석 방법은 성경 전체의 조명을 통하여 특정한 구절을 해석하게 도와준다고 한다.<sup>92</sup>

## VI. 결론

본 연구는 성산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그의 공헌도를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평가해 본다.

첫째로 그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교리를 주장한 신학자이다. 예를 들면 그가 주장한 성경관을 살펴보면, 성경관의 형성을 교리적인 체계가 아닌 성경 자체를 통하여 세우기를 즐겨하였다. 성경적 증거를 통하여 성경의 신적 기원, 성경의 영감,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성경의 언어 성격을 규명한다고 보았다. 이런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바른 성경해석원리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그는 올바른 성경관에 근거한 성경적 신학을 추구하는 학자로 평가된다.

둘째로 성경본문의 우월성을 통하여 개혁신학의 전통을 발전시킨 신학자이다. 그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개혁주의적인 성경해석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였다. 조직신학에서 개혁신학을 발전시킨 박형룡 박사나 명신홍 박사, 그리고 신복윤 박사가 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신약학자로서 또 성경신학자로서 철저하게 개혁주의적 성경관에 기초하여 언어와 문법 그리고 역사적 맥락, 구속계시의 점진성에서 개혁신학과 연결하여 개혁신학의 교리들을 풍성하게 발전시킨 학자이다. 이런 그의 신학적 발전은 박윤선 박사와 보스의 영향을 말해준다.

셋째로 성경과 신학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룬 신학자이다. 그는 앞선 시대의 신학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러나 로마 카톨릭신학에 대해서는 성

<sup>92</sup> 박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154-156.



경적 비판을 가했다. 성경과 개혁신학을 조화롭게 연결한 신학자이다. 예를 들면 칼빈(J. Calvin)은 루터(M. Luther)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전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성경 해석을 통해 칼빈은 신학이 정립되었다고 말한다.<sup>93</sup>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이외의 자료에 대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지 말도록 주의도 항상 준다.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한 학자이다.

네 번째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성경해석 원리를 찾으려고 시도한 점이다. 참된 신학자는 어떤 철학적 근거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성경 안에서 참된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자들이다. 루터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칼빈이 성경 해석 원리를 성경 자체에서 발견하듯이 박형용 박사도 역시 자신의 해석적인 체계를 성경안에서 또 바울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만든 해석의 틀로서 성경에 접근하지 않고 이미 성경 자체 안에 있는 해석의 원리를 탐구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신학자였다. 이런 그의 사상은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반틸(C. Vantil)의 신학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미 칼빈의 해석학에서도 발견되는 동일한 방식의 원리이다. 이런 그의 성경 내포적 원리에 의한 해석적 도구는 자유주의신학자와 칼 바르트(K. Barth), 볼트만(R. Bultmann)과 신 해석학과, 그리고 현대 포스트모던 해석학과에게 경고를 주며 도전을 주는 예언자의 지혜이다.

다섯 번째 구속적-역사적 해석의 중요성을 제시한 신학자이다. 그는 성경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속적 - 역사적 문맥이 무엇인가라는 거시적 전망 속에서 어떤 특정 문구나 그 문맥을 살펴보고도록 제안한다. 이렇게 관찰할 때 가장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sup>94</sup>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 사상을 해석학에서 연결한 독특한 그의 해석학의 공헌이며 강점이다.

<sup>93</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68.

<sup>94</sup>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18.

여섯 번째 정경적 해석방법이다. 박형용 박사의 이 방법은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의 문법적·역사적 방법과 성경신학자 보스(G. Vos)가 구속계시의 점진성을 강조한 성경신학적 방법을 종합한 방식으로 이는 그의 창의적인 해석학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석학 분야에 소중한 공헌이다.

한국의 정통주의 개혁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박형용 박사는 그의 신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였다. 특별히 그의 철저한 성경관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린 것이다. 매우 중요한 성경해석의 전제로 개혁신학과 구속사적 해석을 주장하여 그의 해석학의 뼈대를 세웠다. 그의 특징적인 성경의 원리로서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와 구속사적 해석의 원리를 굳게 고수하였으며, 성경해석 방법의 독창적인 방법으로는 3개의 조합을 동시에 살피보는 역사적 문법적 정경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격동의 시대를 만났던 성산 박형용 박사의 삶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가 이룩한 신약학 분야의 많은 학문적 업적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과 한국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있다. 바로 그것은 박형용 박사의 수고와 헌신, 사랑과 관심이 결들인 그의 지식과 지혜의 산물일 것이다.

그가 이룩한 공헌은 개혁신학적 유산을 성경해석학 분야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냈으며, 논리와 원리와 방법에서 그의 독창적인 그 주장들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가 이룩한 유산을 통하여 후대들은 그의 가르침의 토대위에 성경적이며 개혁신학적인 원리와 방법을 찾아내며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갖게 된다.

박형용 박사의 귀중한 글로 마치려 한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편의와 실용성을 점점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편의성과 실용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우리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의 말씀은 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서 사도적 전통을 지켜 아름다운 신학적 전통을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다.<sup>95</sup>

---

<sup>95</sup> 박형용, “성경과 성경해석”, 7.

## 참고문헌

- 박성일. “하비 칸의 신학과 사역”.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신학』. 이종윤외.  
서울: 필그림출판사, 2010, 401-402.
- 박아론. 『나의 아버지 박형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 박형룡. 『사도행전 주해』.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_\_\_\_\_.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2 (1984): 28-42.
- \_\_\_\_\_. “신학자의 모델 바울”. 「성경과 신학」5 (1985): 53-63.
- \_\_\_\_\_. “바울과 개혁주의”. 「신학정론」 8/2 (1990): 240-242.
- \_\_\_\_\_. “성경과 성경해석”. 「신학정론」 21/1 (2003): 5-7.
- \_\_\_\_\_. “‘신학정론’과 죽산(竹山) 박형룡”. 「신학정론」 30/1 (2012): 273-298.
- \_\_\_\_\_.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본문의 중요성”. 「신학정론」 3/1 (1985): 62-80.
- \_\_\_\_\_. 『복음 비평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_\_\_\_\_. 『신약개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7/2002/2005/2009.
- \_\_\_\_\_. “신약의 영감과 난제들”. 「성경과 신학」 9 (1990): 92-126.
- \_\_\_\_\_.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엠마오, 1991.
- \_\_\_\_\_. 『사복음서 주해(Ⅰ)』.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4.
- \_\_\_\_\_. 『사복음서 주해(Ⅱ)』.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4.
- \_\_\_\_\_. 『사복음서 주해』(합본).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9/2015.
- \_\_\_\_\_. 『신약 30주제』. 서울: 하나, 1996.
- \_\_\_\_\_. “칼빈주의는 아직도 생동력이 있는가?”. 신학정론 15/2 (1997): 295-298.
- \_\_\_\_\_. 『교회와 성령』.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2012.

- \_\_\_\_\_. 『빌립보서 주해』.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2011.
  - \_\_\_\_\_. 『에베소서 주해』.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8/2006.
  - \_\_\_\_\_. 『믿음의 삶』.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 \_\_\_\_\_. 『신약 정경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_\_\_\_\_. 『히브리서』. 한국성경 주석총서. 서울: 도서출판 햇불, 2003
  - \_\_\_\_\_.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3.
  - \_\_\_\_\_. 『바울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2008/2013.
  - \_\_\_\_\_. 『신약성경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 \_\_\_\_\_.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해』.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 \_\_\_\_\_. 『정암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수원: 영음사, 2013.
  - \_\_\_\_\_. 『말씀산책』. 수원:합신대학원출판부, 2018.
- 안명준. “칼빈 신학방법론의 길잡이: 기독교 강요의 이해를 위한 칼빈의 신학적 전제 요소들”. 『조직신학연구』 10 (2009): 7-31.
- 이상웅. 『박형룡 박사와 개혁신학』. 용인: 목양, 2013.
- 이승구. “정암의 개혁파적 교회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개혁신학』 25 (2009): 118-151.
- Ahn, Myung Jun. “The Ideal of Brevitas et Facilitas: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retoria, 1998.
- Bavinck, Herman. *Our Reasonable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56.
- Park, Hyung Yong.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Suwon: Hapshin Press, 2011.
- \_\_\_\_\_. *From Incarnation to Exaltation*. Seoul: SBGST, 2011.
- \_\_\_\_\_. *Redemption and Newness of Life*. Suwon: Hapshin Press, 2001.
- Wolterstorff, Nicholas. “The Importance of Hermeneutics for a Christian

Worldview,” In *Disciplining Hermeneutics: Interpretation in Christian Perspective*. Ed. Roger Lundin. Grand Rapids: Eerdmans, 1997.

인터넷 참고문헌과 기타자료

국민일보. “박형용 박사, 신학은 균형잡혀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1406942&code=231111111>. 2009-11-08

크리스찬타임스. “박형용 총장”. <http://www.kctusa.com>. 2013-01-28.

기독교개혁신보. “대봉교회 이순배 은퇴목사 소천”. <http://rpress.or.kr/xe/18398>. 2010-09-29.

KCM. “조상학”. [http://kcm.co.kr/person/person\\_k013.html](http://kcm.co.kr/person/person_k013.html). 2015-8-12.

박형용, “박형용 박사와 전화 인터뷰”. 2015-8-10.

*Abstract*

## Theolog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of Dr. Park Hyung Yong

Ahn, Myung J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riefly introduce the life of Reformed theologian Park Hyung Yong (1942-) and examine the background of how his theology was formed and then investigate his th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s and methods of interpretation. As a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 use the historical and traditional method of Reformed theology from his writings. Therefore his theology is based on Reformed theology and his biblical evidence proves this. His biblical interpretation was used by the presupposition with principles of Reformed theology and the redemptive interpretation.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he showed that he used grammatical-historical-canonical methods as his distinctive biblical interpretation methods. Park Hyung Yong's theology and interpretation methods show that the redemptive-historical-biblical method has evolved clearly in hi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rough the principles of Reformed theology.

**Key-Words:** Park Hyung Nong, Park Yune Sun, Reformed Theology, Bible Interpretation, Biblical Theology, Religious Historical Interpretation Principle, Grammatical-Historical-Canonical Interpretation

---

\* Pyeongtaek University, Pierson Theological Graduate School